朝鮮日報 朝刊

社說

五山、養正의 慶事

一

國內에잇서서 빗나는 歷史를 가진 우리의 敎育機關 五山學校는 過去 數十年동안 逆境的 悲運에서 그前途를 打開하기에 온갓 波瀾을 다 격거오다가 近年 五山關係者 諸氏의 努力으로 高等普通學校로 昇格되는同時에 學校財政도 漸次安定狀態에 드러가게되여 一般은 저욱히 同校의 將來를 安心하게되던바 不幸히 昨年봄에 火神의作亂으로 不過 數時間內에 第一校舍가 痕跡도업시 燒散되고 數百生徒에 敎授할길이 漠然하다함은 그當時에 誰도 ...한바이어니와 이慘禍를 當한지 不過 一年半에 十萬大金을 드린 總延坪 六百二十餘坪의 二層煉瓦造의 雄壯한 大建物의 竣工을 보게되여 지난 二十五日 盛大한 落成式을 擧行하는 同時에 十年勤續敎員 七名에 對한 表彰式까지 兼行하엿다하니 이로써 同校 關係者의 努力이 얼마나 만흔것을 알수잇는 同時에 南岡의 遺志를 바든『五山健兒』들의 意氣와 努力은 이것으로 充分히 證明되는줄안다。

二

그런데 昨二十八日 養正高普에서는 또 同校創立三十週年記念式及 創設者 故嚴柱益氏의 胸像除幕式과 現校長以下 二人의職員에對한 二十年勤續表彰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

養正高普는 養正義塾의 後身으로 朝鮮人의 손으로된 가장 歷史긴 現代敎育機關의 하나이다。同校는 光武九年二月에 嚴柱益氏의 創設에 依한것으로 光武十一年 慶善宮 及英親王宮의 特賜에依하야 鞏固한 財政的基礎우에서서 朝鮮人에게 必要한 法律及經濟智識을 涵養하여 오다가 大正二年 新敎育令發布와 同時에 中等敎育의 普及을 더切實히 늣기고 現在의 養正高普 即名實共히 中等學校로 變更經營하야 今日까지 나려오는 그동안에 우리社會에 一千名에 가까운 有用한 일꾼을 내여보낸 事實은 누구나 잘아는바이어니와 養正은 特히『어세朝鮮』의 建設上 智育以外에 體育의 必要를 認定하고 이方面에注力하야 朝鮮人의『힘』이 世界어느나라 어느 民族만 못하지안타는 運動界의 新記錄을 繼續하야 보여주고잇슴도 世人이 周知하는바 事實이다。

三

養正이나 五山은 물다 三十年 또는 近三十年의 過去를가진 朝鮮사람의 손으로된 가장 歷史깁흔 現代的 敎育機關이다。이두學校가 前後하야 慶事를마지하게되엿다는것은 우리의 깁붐을 보다더 强하게하거니와 兩校는 이와가튼 慶事를 마지하게된것을 契機로 今後一層더 朝鮮人에 보다더 適切한 敎育涵養에 努力하기를 바라는바이다。

敎育은 各國의 傳統에따라 그目標를 달리한다。即 英國사람은 사람을 採用할때에 그사람이 어떠한 人格者인가고 뭇는데 反하야 米國사람은 그가 무엇에 能長하가고 뭇는다。佛蘭西사람은 그가 무슨試驗에 파쓰하엿는가고 뭇는데 反하야 日本사람은 그가 어느學校를 나왓는가고 뭇는다。이것은 各各 그나라의 傳統的 特殊性에 依하는 此에 符合하게 되지안흘수업는것이니 마치 敎育政策도 亦是一당。그러나 여긔는 各各 그長短이 잇스므로 우리는 朝鮮現實에 則하야 이長短을 取捨하지 안흐면안된다。五山과 養正은 特別히 歷史가깁고 朝鮮人에게 그校門을자랑할만에는 不足이업다。그러나우리는 兩校가 이것에 滿足하여서는 안될것은 勿論、敎育의 三大目的이 智德體三育에 잇느니만치 兩校當局은 智育體育以外에 德育的方面에 더욱 留意하야 現下敎育界의 先鞭이되기를 바라는바이다。

英佛提携實現을 佛首相라氏確言
最惡의境遇經濟的制裁에一致
海軍共同動作協議?

【巴里二十八日發聯合】大陸의安全保障에關한 英國政府의 回答은 聯盟理事會에서한 호어外相의演說을 再確言하엿슬뿐이오一般의 新原則을 하는것을 拒否하엿다고 보인다 佛國政府當局은 右回答에全幅의 滿足을 表明하고 라발首相은 今後아모런 顧慮念慮를 하지말고 英國政府와의 提携實現을 圖하자고 確言하엿다 即英佛兩國政府는 聯盟規約擁護의 見地에서 最惡의境遇에 共同하야 伊太利政府에對하야 經濟的制裁를 加하기로 意見이 一致되엇는데 去二十四日以來 外交機關을 通하야 兩國政府의 折衝이 頻繁을 加하야 무엇인지 重要協議를 進行하고잇는것은 疑心업다 또 英佛兩國政府當局은 交涉內容에 對하야 一切發表를 避하고 單히 地中海上의 海軍共同 動作에對하야 協議를進行하고잇다고 傳하고잇는데 不過하다 消息通에서는 英佛兩國 政府間에相方援助條約의 折衝이 進行되고잇다고 傳하고 또 伊太利 政府를 除外코 英佛兩國사이에서만 空軍로카르노 協約案을 締結할意向이라고도 傳한다

勸告案起草着手로 伊首相態度緩和說
三十日新政策提示?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聯盟理事會가 勸告案起草에 着手한以來 情勢는 惡化의一路를 밟게되어 悲觀的空氣가 濃厚하게되엿이지음 뭇솔리니 首相이 突然 態度를 緩變하야 和協交涉에應하기로 決意하엿다는旨의 報道가 二十六日夜부터 頻頻히 流布되게되엇다 右報道에 依하면 뭇솔리니首相은 最近 羅馬駐箚佛國大使샹브랑伯과 會見하고 英佛兩國政府가 公正妥當한 對案을 提示한다면 伊太利政府에서도 欣然 考慮를加할用意가 잇다고 通告하엿다고한다 或은 뭇솔리니首相은 二十八日의 國務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三十日 新對案을 提示할 意向이라고 한다 各代表部는 不安視에도 右報道에 一縷의 希望을 걸고잇다

스運河會社理事會

【倫敦二十八日發電通】스에즈運河會社는 來週末巴里에서 特別理事會를 開會할터인데 右는伊에紛爭에關聯하야 對伊制裁를實施할 境遇를考慮하야 스에즈運河會社가 取할 態度를 檢討하기爲한것인데 右理事會에 對한英國政府의 態度는 聯盟의英國代表의 方針과 全然一致되엇다고 解釋되다

飛行機上에서 國境衝突監視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佛國代表部專門委員그리올氏는 라발首相의 示唆에基하야 空中巡邏案을 考究하고잇는데 二十日夜同案內容에 對하야 左와如히言明하엿다 佛國代表部는 二十七日 十三人委員會에 彪大한 空中巡邏隊案을 提示할 方針이다 伊太利領植民地와 에디오피아와의 國境線은 延長數百哩에 亘하고 交通이 不便하야 通常의巡邏로는 全然無力을 暴露함에 不過하다 그러나 空中巡邏隊로 옵서버團이 飛行機에 搭乘하고 恒常國境線을監視하고잇스면 何時戰端이 開始되는가 直時 正確히 實情을 把握하야 理事會는 伊에兩國의 어너國家가 侵略行動을 取하는지 容易하게 判斷할수잇슬것이다

伊國重大閣議 羅馬서開會

【羅馬二十八日發電通】伊太利의 最後的態度를 決定할 二十八日의 重大閣議는 뭇솔리니 首相自身司會下에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위미나레宮에서 開會되엿다 過般北伊의 볼차노市의 緊急閣議以來 實로 六回재의 閣議이다

勸告案起草의 分科委員을任命
十三人委員會에서

【쥬네브二十八日發聯合】十三人委員會는 二十八日午前十時부터 聯盟事務局內에서 會議를 開催하고 英國代表이든 無任所相、佛國代表마시그리氏等 十三人委員會下에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한 勸告案起草의 分科委員을 任命하기로 되엇다

英爆擊機四機 阿弗利加로急行

【아덴스二十八日發電通】希臘政府의 公表에 依하면 地中海말타島를 出發한 英國爆擊機四機는 二十八日 크리트島의 飛行場에 着陸하야 給油한後 阿弗利加北岸의 알렉산드리아 로向하야急行하엿다

飛行機監視의 可能性을研究

【쥬네브二十七日發電通】十三人委員會에서 任命된 英佛西三委員의 小委員會는 二十七日午後六時 第一回會合을 開催하야 에디오피아의 要請에 基하야 에디오피아 國境方面에 中立옵서버를 特派하야 飛行機로 國境線을 監視하는 案의 可能性에 關하야 佛蘭西軍 飛行家뿌-르氏를 招致하야 그意見을 求하얏다

十三人會議長 西國代表當選

【쥬네브二十七日發電通】十三人委員會初會議에서 議長選擧를行한結果 五個國委員會의 西班牙代表마다리아가氏가 當選되엿다

聯盟總會 常時開會
滿場一致로可決
現下國際情勢에鑑하야

【쥬네브二十八日發電通】今日午前의 聯盟總會에서 本會議는 現下의 國際的政情에 鑑하야 總會를 散會지안코 休會의 形式으로 그대로 存置할 件을 滿場一致 可決하얏다 右는 萬一 伊에兩國間에 戰端이 開始되는境遇에는 二十四時間의 豫告로써 即時 召集再開할수잇도록 待機의 姿勢에 依한 意旨에서 나온것이다

伊에紛爭은— 海軍軍縮會議에 二大障害를齎來
海軍大建艦計畫進行의理由로 米國海軍側에서指摘

【華盛頓二十七日發電通】米國海軍當局에서는 伊에紛爭이 海軍軍縮會議에 二大障害를 齎來한 것을 指摘하고 米國의 旣定建艦計畫은 自然히 進行할박게업시되고 또 英國의 大建艦通告도 結局 實行할 박게업시될것이라고 觀測하고잇다 그리고海軍當局이 말하는 二大障害라는것은 要컨대 今번의 軍縮會議豫定地는 世界軍縮史上 最惡의 時機에 遭遇하엿다는 것이다

第一、伊에紛爭이 軍縮成功의原動力이될 平和的 雰圍氣를 一掃해버렷다는것

第二、獨逸海軍再軍備에 對한 聯合國側의 阻止의 可能性이 伊에紛爭騷動으로 거의 零이 되어버린것 即 獨逸의 베르사이유條約의 軍備條項 一方的廢棄에 依한 大建艦建造를 共同動作으로 阻止하기는 現下의 歐洲諸國間의 狀況으로는 全然不可能하다 獨逸은 이틈을 타서 軍備充實에 努力하고잇는것은 確實하다고 信憑됨으로써다 特히 英獨協定에 依하야 航空母艦二隻의 建造를 豫約한것은 北海에서의 獨逸의 立場을 極히 强力케하고잇는데 이

汎太平洋航空 比島發着權附與

【마닐라二十七日發電通】比律賓上院은 二十七日 北米利加의 汎米航空會社에 對하야 今後二十五年間 比島發着의 航空事業經營權을 賦與하는 法案을 可決하얏다 下院도 二十八日 이것을 可決할것이라고 推測되다

北平市政府派遣의 訪日視察團門司着

【門司電話聯合】中華民國 北平市政府參事官吳承堤氏以下十五名의一行은 二十七日午後 天津으로부터 門司着港의 近海郵船景山丸으로 門司에 到着하야 同夜十時下關發 特急櫻으로 向東하엿는데 團長은 門司着과함께 左의 스테이트멘트를 發表하엿다 우리一行은 袁市長의 命을 受하야 日本의 一般市政과 商工業視察을 爲하야 日本各都市를 二十六日동안 巡歷할 豫定이다 其他 大都市制 敎育 商工業一般의 範을 取擇하는同時에 奈良의 古文化를 如何이 保存햇는가를 보아 參考로 하고십다 그리고 市政執行以來 二十年間 衰亡의 一路를 밟버온 北平市의 繁榮에 資하려고 日本朝夜의 名士와 親히 懇談을 交하고 親善에 努力하야 참된 日中提携의 美果를 ...이다

伊代表反對不拘 總會休會案決定

【쥬네브二十七日發聯合】聯盟總會委員會는 二十七日의 會議에서 總會休會案을 提案할旨를決定하얏다 委員會가 總會의 閉會代身으로 休會案을 提案한것은 今回가 嚆矢이며 聯盟이 伊에紛爭을 如何히 重大視하고잇는가를 말하는 證左이다 伊太利代表 알로이지男은 처음부터 끗까지 休會案을 反對하얏스나 壓倒的 多數로 休會案은 決定되에 이르럿다。

外相對中政策에 藏相全幅的贊意

【東京電話聯合】廣田外相은 二十八日 午前九時半 赤坂私邸에서 靜養中인 高橋藏相을 訪問하고 最近 國際情勢에 對하야 報告하고 또 英國政府顧問 리-스로쓰氏로부터 日本政府에 內示提案된 對中經濟 共同工作을 爲始하야 日中關係의 現狀에 關하야 詳細報告하고 日本으로서도 從來의 靜觀主義를 一擲하고 고드되어 日中關係의 全面的整調에 積極的으로 進出할必要가 切迫되어잇다고 廣田外相 自身의 決意를 披瀝한後 對中國策遂行을 爲하야 二十七日에 開한 四閣僚會議에서 岡田首相、廣田外相、川島陸相、大角海相의 四閣僚가 協議한 結果 對中國策은 爲先 兩國의 經濟提携를 核心으로 하는것이 아니면 안될것은 勿論인데 그것에 對해서는 가장 重要한 關係를 가진 貴下의 諒解를 엇지 안흐면 안되겟다 對中經濟提携에 高適한 識見을 가진 貴下의 具體的意見을 듯고십다고 四閣僚會議에서는 一、東亞平和는 日滿中三國의 融和提携에 依하야 비로소 保障할수잇다 二、北中의 特殊地域은 日滿中三國의 政治經濟文化의 提携를 하여야할터로 이를 爲해서는 日本은 指導的 立場에서서 援助하기를 不惜한다라는 對中大綱에 關하야 意見의 一致를 보앗다고 報告하엿는데 이에 對하야 高橋藏相은 日中提携를 爲하야 滿洲國을 加한 日滿中의 提携야말로 참된 東洋平和를 確立하는 所以라는旨를 述하야 廣田外相의 所說에 全幅의 贊意를 表하고 廣田外相을 激勵한바잇섯다 同十一時 會見을 終하고 辭去하엿다

朝鮮米十四萬石 買替賣却決定

【東京電話聯合】政府는 今回 買替를 爲하야 實施한 政府所有 朝鮮米賣却을 如左히 決定하엿다

一、賣却豫定數量

玄米 一〇八、八九〇石
正租 三八、六四四石（玄米換算）
計 一四七、五三四石

右는 昭和十年九月 農林省告示第三百十二號에 依한 賣却豫定米中 昭和十年九月二十八日 賣却키로 決定된것이다 別 賣却豫定米는 當該米穀事務所에 揭示함

二、賣却時期
見本揭示 昭和十年十月四日
賣却期間受付 昭和十年十月四日
申込受付 昭和十年十月五日
賣却決定 同 七日

三、賣却場所
賣却場所賣却受渡場所
（左記各地의政府指定倉庫）
京城（仁川）鎭南浦 群山 木浦

에問題와英佛伊

伊太利의制裁는 英國의權威確保

④ 徐椿

▲闊領의脅威

亞弗利加大陸에 廣大한 植民地를 무고、이大陸의 一動一靜에 가장 만흔 關心을 가진者는 英國이다。더구나 問題의 에디오피아는 西北으로 英領수단과 相接해 잇고、西南으로 가 英領의 우간다、케니야等地와 相接해 잇다。게다가 前者、伊太利의 立場을 말할때에 暫言한바와가티 伊太利에는 所謂、廣義의 伊太利廻廊計畫이라는것이 잇서 亞弗利加北部에 잇는 伊領리비아와 狹義의 伊太利廻廊을 連結시키려는 計畫이 잇는 것은 英國도 잘 알고 잇다。伊太利가 現在、亞弗利加東部에 가지고 잇는 에리트리아와 伊領소마리 만을 가지고 서는 大廻廊計畫은 單純한 希望에 不過하지 마는 萬若、에디오피아를 어더서 에리트리아、에디오피아、伊領 소마리의 三地를 一束하는 小廻廊計畫을 完成하는날이면 그제는 問題의 大廻廊計畫은 多分의 實現性을 가지게 된다。何故오하면 小廻廊의 三地와 伊領리비아 와의 사이에는 오직 英領수단이 介在할뿐이기때문이다。그러데 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어드면 伊太利는 그땅에다가 自國의 過剩人口를 移植하야 에디오피아로 하여금 第二의 伊太利를 만들것이 分明한즉、伊太利의 屬地化한 에디오피아에는 海陸空의 軍事施設도 相當히 될것이오、그리되는날이면 그周圍로 수단、우간다、케니야、英領 소마리等、廣大한 面積의 植民地를 가진 英國은 到底히 安心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리고 또 萬若、英領수단을 빼아끼는 날이면 埃及의 運命도 危殆함을 免치못할것은 또한 想像키 어렵지 안흔 일이다。故로 둘재로 이植民地에의 威脅의 一事를 생각해 보아도 英國은 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먹는것을 傍觀할수 업는 立場에잇다。

▲航路의危險

또한 印度는 英國의 寶庫인 同時에 英國의 生命線이다。더구나 英國의 各自治領이 英本國으로부터 政治上、經濟上、獨立隧隔해가는 傾向이 날로 濃厚해가는 今日에 와서는 英國에 對한 印度의 重要性은 더욱 增加해 온다。그러므로 英國은 自己의 목숨이 끈허진는날이 아니면 그손으로부터 印度를 내 노흘수업는 處地에잇다。

그런데 이제 英國이 印度를 確保하는데는 그絕對必要條件이 英本國으로부터 지부랄타르海峽을 지나서 地中海、수웨즈運河、紅海를 經由하야 印度洋으로、나오는 航路의 制海權을 確保하는데 잇다。이제 萬若、伊太利가 에디오피아를 關領을 만드러지고、거기다가 海陸空의軍事施設을 大量으로 해노코서 英印航路의 連鎖의一輪인 紅海의 대목을 딱 줍너 노흐면 이것은 英國의 印度確保上、重大한 缺陷이 될수박게 업다。

▲英國의權威

이러케 重大한 利害關係가 잇는데도 不拘하고、英國이 今番 일을 袖手傍觀하고 잇게 되면 그것은 列强의눈으로 보나 또는 英國의 統治權下에 屈服하고 잇는 被壓迫의 諸民族의 눈으로 보나、그것은 英國은발서 헐수할수업는 老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것이라고 보힐수박게 업다는 눈치를 英國은 잘 살피고 잇다。그러나 그들에게 이러케 보이는것은 홀로大英帝國의 名譽와 및 體面에 關係될뿐만 아니라 그影響은事實로 미처서、列國은 伊太利의 본을 떠서 英國의 權益을 빼아스려고 덤빌것이오、또 그統治에 屈服하던 民族가운데서는 謀反을 始作하게 될것이다。

이러케 보아오면 今番 에디오피아問題로 因하야 빼아끼는 英國의 權益쯤은 달리도 廣大한 領土가 잇고、豐富한 富源이 잇는英國으로서는 或 참을 수 잇는程度라고 할지라도 列國仰視의 標的에서는 大英帝國의 權威保存이라는 一點만으로 보아도 英國은 今番 일에 가만 잇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것이 英國이 國際聯盟과佛國을 끄을고서 今番、伊에間의 紛爭에 깁히 干涉하는 所以오 國際聯盟과 佛蘭西가 다自己말을 듯지 안케되면 單獨으로라도 伊太利의 行動은 그냥두지 못하겟다는 所以다。

一事一言

長白山人

讀書와古典

【燈火稍可親、簡編可卷舒】는 正히 이 때를 이름이다。가을을 讀書의 씨즌이라고 한다。朝鮮에도 近來에 讀書子가느는것은 圖書館閱覽者統計로 아는 일이니 깃븐現象이어니와 가장 矛盾되는것은 智識階級의 非讀書다。敎員、新聞記者、文士、宗敎家等은 가장 讀書아니하는 階級이라는 奇異한 現象은 一事一言子의 錯覺일까。非讀書의 特色에 最大한것은 愛讀書와 愛藏書가 업다는것이다 닥치는대로 한 두페지 뒤적거리는것이 讀書가 아니다。한 卷의 良書를 百讀千讀하야 精讀하는 것이야말로 讀書다。제가 무슨 冊을 가젓는지도 모르는 藏書가 藏書가 아니다。一卷도 藏書를 떠날수업는 藏書야말로 진실로 藏書다。天下의 書를 다 藏할수도업는것이오 더구나 다 讀할수도 업는것이니 人類의 最大敎師의 書만은 藏讀아니 할수업고 그中에도 제가 特別히 師事한다든가 愛好한다든가 하는 一卷 或은 數卷書를 定하야 反覆하야 熟讀 玩味하는것이 讀書의 要다。그야 或은 專門、或은 娛樂으로 一覽과 博覽할 必要도잇지마는 一覽과 愛讀과는 自然別物이다。

例하면 孔子는 晩而喜易하야 韋編이 三絕이라 하엿고 린큰은 平生에 聖經을 愛讀하야 大統領時代에도 일즉 이冊을 노흔 일이 업다고 하며 나폴레온은他의 英雄傳을 愛讀하엿다 하고 朝鮮에도 或은 周易을 或은 中庸을 平生에 愛讀하야 思索과 言行의 修養에 資하엿다는 이가 만다。

이러한 愛讀書는 專門과 職業을 超越한것이어서 무릇 人生을 놉히、깁히、뜻잇게 잘 살아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文人이나 商人이나 工人이나를 勿論하고 가진것이다。四書、論語、中庸、老子道德經、莊子南華經、佛經、聖經等은 愛讀書되기에 가장 適當한 冊일것이다。이러한 冊들은 人生處世의 道를 論한것이니 비록 몸소 師事되지아는이라도 人類의 大敎師의 言行과 敎訓으로 百讀할 價値가 잇슬것이다。秋夜燈下에 肅然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古聖賢을 邀請하야 道를 談함이 곳 古典을 읽는 滋味다。

緬甸貴州間鐵道 英敷設權獲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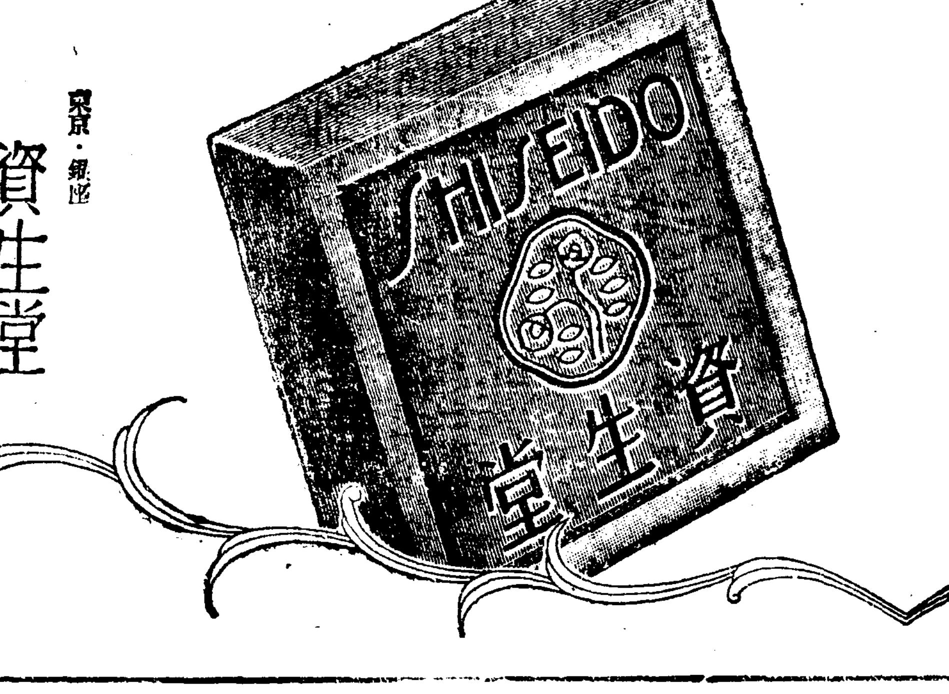
【上海二十八日發聯合】緬甸과中國間의 國境을 確定하는 中國側國境委員은 二十日 香港經由雲南에 向하얏는데 國境問題를 中心으로 이미折衝이 開始되어 英國側은 金産地로 有名한 班洪地方을 中國領土로함을 承認하고 이代償으로 緬甸에 雲南을經由하야 貴州에通하는 鐵道敷設權의 獲得을 目標로하야 右에關한商議는 相當히 進捗되여잇서 或은곳 協定成立에 到達하지나안흘까하고 推測된다

人事·集會

▲入江海原氏(拓務次官)二十八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投宿
▲中村寅之助氏(前土地改良部長)二十九日午後三時二十分 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投宿
▲永井淸氏(間島總領事)同上 前屋投宿
▲立川二郎氏(前新義州法院長)同上 山本旅館投宿
▲齋藤禮二氏(前咸北知事)同上不知火旅館投宿
▲生田淸三郎氏(前內務局長)同上 朝鮮호텔投宿
▲淺利三郎氏(前警務局長)二十九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投宿
▲丸山鶴吉氏(前警務局長)三十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入京京城호텔投宿
▲齋藤實氏(前總督)夫人同伴二十九日午後三時二十分京城驛着入京 京城호텔投宿
▲遠藤格氏(海軍少將)齋藤子隨行 同上
▲谷正之氏(駐滿大使館參事官)三十日午後二時五十分京城驛着入京朝鮮호텔投宿

資生堂洗濯石鹸 (자생당빨내비누)

本品의特徵!
一、最高의品質、最低의價格
一、芳香、거품이極히佳良
一、손을안것칠게、살결은안傷하게
一、洗濯後에不快한내음새안나고쓰기조타



東京·銀座 資生堂

補陰補陽 性器强大靈藥
瑞廉士大醫生新劑 淸導補腎丸
二週分 三圓 四週分 五圓五十錢 六週分 八圓 (先金送料自擔)

商報進呈
唐材藥材貼藥、中國有名靈藥、早漏防止藥、皮物、書畫、寶石、時計、麻雀、其他特産物等을滿載한商報
滿洲國安東縣 滿洲郵局私信函第六號 (中國街四〇) 振替口座京城二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說明書進呈

九月二十八日부터特別大公開 階下席十錢均一
씨-즌大衆娛樂名番組
大都映畫巢鴨特作猛鬪現代劇 原作、和田敏三、脚色、外山風平 大江秀夫……監督作品
快腕火花を散らして
東鄕久義……猛鬪主演 北見禮子、宮城浩二 松村光夫、小笠原隆 共演
메도로映畫社가全機能과最高스타를動員식혀完成한十大特作品隨一 巨璧…하와도호-구스監督
大戰悲詩『今日かぎりの命』 게리-구파-、죠-ㄴ크로포-드……主演
大都映畫巢鴨特作時代劇 原作山本三八、監督中島寶三 阿部九州男、琴絲路……主演
『颱風の劍士』 澤田敬之介、三城輝子、久松玉城、久野あかね、橫山文彦、橘喜久子 共演
櫻井町 本局 八五五 大正館

九月二十九日부터 天下人氣를獨占한二大雄篇一時上映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WS반다이크氏大作品!
類猿人다-산
飛躍王죠니와이스미유라氏主演 妖花모린오사리반孃 닐 하밀 톤 氏 主演
M、G、M超大作全發聲日本版 巨匠새도릭그기본스氏大作
類猿人다-산의復讐
鳥人죠니와이스미유라氏主演 모린오사리반孃 닐하밀톤氏 助演
古今獨步!天下人氣를獨占하여映畫史上特記할偉跡을남긴二大雄篇의一時上映!이絕好한時期를일치마시라
帝國敎育映畫研究所製作 海軍省後援 全發聲東鄕元帥 監修海軍中佐善田實次郎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九月卄八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特別大興行
◆世界人氣를獨占한 우리들의샤리、템플少女主演 젬스딴助演
빗나는눈동자
폭스社超特作日本版 샤리、템플映畫의王座篇、只今에 샤리템플은여러분께손짓합니다 어여부고、귀엽고、앙증하고、영니하고똑똑하고、상냥하고또—
◆R、K、O、라디오超特作日本版 와리뿌렌、찰스스타렛 윈리암、좌던主演
流線型超特急
世界初有의最大스피-드戰慄冒險篇、映畫創始以來驚異的傑作
國産映畫 一篇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九九 圓成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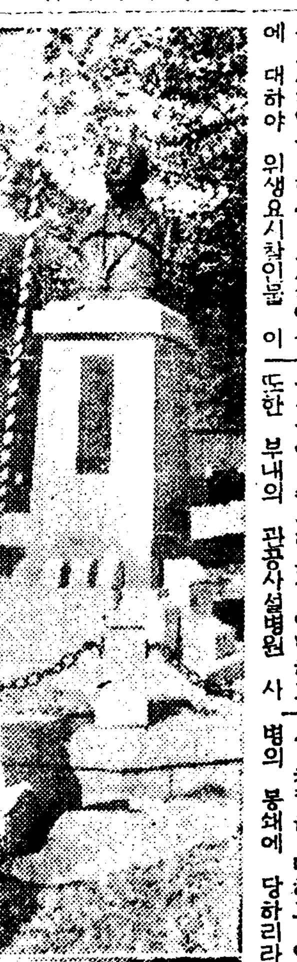
九月廿八日부터三日間大公開 秋節씨-즌本格的大名畫當當되上映 三回興行正午、三時半、七時半
新興키네마社高田프로덕숀 合同超特大作品
現代劇『街』(靑春爭鬪篇)全十卷 靑山三郎監督 高田稔主演 佐久間妙子、渡邊篤助演
어버이가자식을사랑하는것은誰人을勿論하고一般일것이다!그러나孝誠스러운자식은더욱사랑할것이오!不良한子息은愛情이머러저가는것이우리世人에흔이잇는것이다!이-映畫一篇이우리의어버이들에얼마나參考될만한名篇이되는지 파라마운트社超特作
家庭悲劇 부론드·뷔나스(ブロンドヴィナス)全十卷
主演名優 마레네·데이트리히孃大熱演하-바드·마살、게리·구란드 助演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七三番 第一劇場

大量來客잇슬十月中 傳染病大封鎖陣
市內五百餘旅宿과各飮食店을團束
京畿道衛生課서發奮警戒

시월일일 시정기념일을 압두고 경찰당국에서는 전조선적으로수만의 경관을동원하야 엄중한경계를하고 잇거니와이날을전후하야 경성시내에는 만흔손님이내외로부터 집중하야 십월 한달은 시내는 또다시 폭주하는 인사들로 인하야 복잡을 극할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이에 일즉이 지난 봄에 수십만 관광객의 경성집주의 뒤를니어 고맙지아니한 전염병의 대량적 입제사겨울바든 통절한경험의 기억이 아직도 새로운 경기도경찰부위생과에서는 시월일일을 압두고 일반경게외에 위생상의경게를 단속하야 지난봄의 전철을 면할 필요를 크게 느끼고 그대책을 강구하게되엿다 그래서위선 시내각서에 향하야 구월중으로 대청결을 전부 완료하도록 통달하고 또한 고등요시찰인물 혀사 요시찰인물에 대하야 위생요시찰인물이라고할 전염병 보균자의 단속을긴밀하게하는 외에 부내의여인숙업 일백육십팔개소와 하숙업 삼백구십일개소에 대하야특히 영어관계 처소의 청결소독과밋 음식물에 주의하도록 엄달하고 또한 부내의 관공사설병원 사십개소에 향하야도 방역과밋전염병자의 용달격리등에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통달하야 그러치안어도 일번중에도바로 그밥호기인 가을을 당하야례년에업시 창궐을 다하고 잇는 전염병의 봉쇄에 당하리라한다

江華에雨雹 被害甚大
감까지떠러저

【江華】 지난이십륙일 오후여섯시부터 갑작이 나리는우박(雹)은 삼시간에 지상일촌여나되게 나리엇다 부내면대산리 월곳리 룡정리(府內面大山里 月串里、龍井里)방면에는 그정도가 더욱심하야 맛치 논바닥에다 벼를뿌린것과 가티되엿고 심지어 감(柿)까지 떠러진곳까지 잇섯고 채소에는 더할나위업시 손해를 보앗다고한다



(사진은 고엄씨 흉상과 성대한 기렴식장)

孜孜育英卅年間 養正高普記念式
故嚴氏胸像除幕式과勤續者表彰
來賓如雲·盛大히擧行

지금부터 삼십년전 광무(光武)구년이월에 창립한이래 천여명의 졸업생을내어 조선교육계에 지대한 공헌을하고 잇는 양정고등보통학교(養正高普)에서는 이십팔일 오후두시부터 그학교교정에서 동교창립제삼십주년기념식(創立三十週年記念式)과 밋 고엄주익(嚴柱益) 교장 흉상제막식(胸像除幕式)을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두시정각의 전령이 울자 오백여명의 생도가 일제히 입장하고뒤를 이어 생도부형과 졸업생밋 래빈(來賓)이 입장한후 식(式)을 열어 연혁보고(沿革報告)가 잇슨다음 고엄교장의 유족의손에 의하야입동의 박수속에 제막식이 거행되엿다 뒤이어 현교장 안종원(安鍾元)선생과삼십주년이상 동교에 근무한교무주임 서봉훈(徐鳳勳) 서무주임 강용표(康容杓) 세선생의 표창식이 잇고본사사장 방응모(方應謨)씨와 권동진(權東鎭)씨등 각계의 축사(祝辭)가잇슨다음 세시반쯤되야 식은 원만히 마추엇다 그리고 그학교에서는 이번삼십주년 긔렴식을 더욱 의미잇게 하기위하야 교내에 전람회(展覽會)를열고 생도작품과 긔타연구재료를 진렬하야 이날래빈에게 안내하는동시 이십구일에는 일반에 공개하고 시월일일에는 오선열시부터 동교정에서 륙상운동회를연다고 한다

白衣政府事件 來月二日公判
新義州法院에서開廷

【新義州】 작년십월이십일、평북 박천군 가남면령미시(博川郡嘉南面嶺美市) 김정빈(金貞彬) 김관모(金鶴模)、허창복(許昌福) 김려수(金麗洙)、박룡수(朴龍洙) 김영휘(金永徽)등 여섯명은 그곳운정 부용관(芙蓉館)에 모이어조선○○을목적으로하는 소위백의정부(白衣政府)를 조직하고 외무(外務)、내무(內務)、탐견(探犬)、군무(軍務)、경제(經濟)、공무(工務)의 여섯부를 둔후 년호(年號)를 『재선』(再鮮)이라결정하고 또 이와 자매단체로 공명단(共鳴團)이란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야 ○○○선언서 기타 격문의 원고를 작성 하엿다하야 려미 경찰서에서 검거하얏든사건은 그후 신의주 지방법원예심게에서 취조한결과 그들은 의렬단과 접근하야 군관학교에 입학하야가지고 자동차와 비행긔의 조종술을 무자본으로 공부코저하는 수단으로 이를 조직하얏고 그러한 비밀단체를 조직할 의사가 잇섯든것이 아니라는것이 나타나게되여 신의주지방법원 예심게에서는 금년사월십구일 이를 면소(免訴)로하얏다 그러나 신의주지방법원검사정은 『이와갓한 범죄자를 면소로한다함은 온당치못한처사』라하야 평양복심법원에 항고를 제출하얏든바 평양복심법원에서는 항고의리유가 잇다하야 원판결을취소하고 이사건을 신의주지방법원공판에 붓치게되엿는데 래월이일에 국지재판장(菊池裁判長) 주심하에 제일회공판이 열리게 되얏다 그항고의 리유의요령은 의렬단과 접근하는 수단으로 하얏다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것이다 더욱이 이런것을범죄의 의자가 업다하야 면소를 한다하면 금후 이와가튼 범죄에 중대한 영향을 밋치게 할 것이라는것인바 이에대하야 당임변호사 리희적(李熙迪)씨의 변론은 과연어떠할는지 흥미잇는 문제이라고한다

〃新建設社〃事件 來月卄八日公判
全州地方法院에서

【全州支局特電】 「카프」를 중심으로 전조선 좌익문사들이 모혀서 공산운동을 하엿다는 신건설사(新建設社)사건에 관계한박영희(朴英熙) 리기영(李箕永)등 이십사명은 이래 예심이 종결되여 공판에 회부된채로 개정일 만기두리고잇든중 공판기일이 십월이십팔일로 결정되여 공판을 열게 되엿다고한다

택씨가轢人

이십륙일오후 삼일시 경성역압 전차정류장안전지대를 향하야건너가든시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십사번지에사는인쇄직공윤순명(尹順明)(二○)은 질주하는 자동차와 충돌되어 바른편 다리의 경골(脛骨)이절골

닭콤한砂糖에 입맛부친窃盜

지난이십륙일 오전아홉시경 부내룡산서(龍山署)원이 청엽정(靑葉町)백오번지 음식점(飮食店)으로 그집 작부들을 취체할목적으로 갓든바 시가이십원의 설당 한포대가 노혀잇스므로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출처를 추궁하엿다 그리하여 그것은 어떤술먹으러왓든 손이 잠시 마끼고 간것이라 하므로 동인이 소재처를 극력내사한중 작이십칠일 정자옥(丁子屋)문전에서 장곡천정(長谷川町)이십이번지상영제과 조선판매회사(森永製菓 朝鮮販賣會社)의 배달부 피강준(皮康俊)(二○)을 용의자로 인치하고 취조하엿든바 의외로 이자의자백으로 그회사 배달부정운산(鄭雲山)이란 자가 주모가되여 전긔피강준과 공모한후 전후 사십여회에 약천원어치의 설당을 훔처내다가 각식료품상 음식점등에 판매소비한 사실이 탄로되엿는데 정운산은 피강준이가 체포되는동시 도주해 버렷으므로 경찰에서는 방금 정을 잡고저 맹활동중이다 그리고 사건은 확대되여 동회사정원 여러명에게 파급될것으로 보인다한다

東京大連間郵便物 卽日로連絡
旅客은大阪、大連間卽日로
十月一日부터實施

동경대련간 련락정기항공의 십월일일부터 명년삼월말 실시될 『다이야』가 허가되여울산(蔚山) 대련(大連)사이에 『엠보이느』를 사용함으로 항공우편은 동경대련간상하편(上下便)모다 즉일로 도착되고 항공려객도 대판(大阪)을오전일곱시에 출발하면그날오후 네시사십오분에는 대련에 도착되며 『대련』을 오전일곱시이십오분에 출발하면 오후네시이십분에는 대판에 도착되기로되여스며 상하편모다 대판에서 신의주(新義州)에서 만주항공회사선과 련락되야 일、만、지의 항공 련락이 긴밀하게되는것이다

電話局新廳舍落成

시내 욱정(旭町)삼월(三越)백화점 뒤편에 건축중이든 중앙전화국(中央電話局)은 이윽고 락성이 되여 이십팔일 오후한시에 신청사、옥상에서 성대한 락성식이 잇슨후 뒤를 니여 후원에서 피로연이 잇섯다고 한다

第二回 全京城商工業者 ★望月寺丹楓노리★

봄철을 한해중가장 조흔시절이라하든 선인(仙人)들의 말한 꿋이 잇슴으로서이다 그러나 가을의 단풍이야말로 「봄꼿보다 붉다」 오히려 「紅葉은二月花」한 옛사람의 글구를 빌지안키로니 뉘라서 이를부정할것이냐! 여름(夏)의 잇거움과 거중의 깃붐을 한가슴안고 깨끗이퇴인 옥우(玉宇)더할수업시 표백(漂白)된 대긔(大氣)속에 폐장(肺臟)이 늘어나는 한까지의 심호흡(深呼吸)을 하며 하루의 한일(閑日)을 가지고 유수(幽邃)한 자연의 품긴히 들어가 고적을찾고 수석을 친하며 산과(山果)를 맛보아 피로를잇고 친구를 위로함이 엇지 노픈한 붕념의 하루를 양지못해 보냄에다 비할것이냐? 더욱이 도회의 살풍경한소음(騷音)속、황진만장의 호탁한 분위긔에서 몸과마음을함께 시달린도회인、그중에도 절두에서는 거리의아우성과 공장에서는 『모-타-』의 갈림소리에 맘초시경을 무디여노흔 도회생활의 최전선의 투사인 상공업가、그들에게 이와가튼 긔회를줌은 실로 주린이에게 량식을 제공함과가튼일이다 최소의경비와 최단의 시간을가지 가장의의잇는 명소와 가장잡잇는 탐승을 하도록하고 아울러 자미잇는여흥까지잇는 이번 망월사(望月寺)탐승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신경상으로 엇는바 수확으로나 십로입백이십파-센트」의 가장 합리(合理)된 하루의피크닉크」일것이다

一、日時 十月六日(第一日曜)
一、出發 集合、淸凉里驛前 午前八時까지 同五十五分發車 到着同九時二十分 望月寺假驛着
一、歸路 望月寺假驛發午後五時二十分、淸凉里到着 同五時四十分
一、散會 同五時五十分淸凉里驛에서
一、場所 望月寺一帶 探勝
一、定員 三百名
一、會費 一圓二十錢 (汽車賃、午飯、茶酒類正宗二合瓶、記念品、賞品等包含)
一、申請 場所及方法 (本社營業部又는廣告部로電話하시면社員이進拜接受함) ▲和信案內係 ▲天一藥房支店(黃金町) ▲和信連鎖店(西大門) ▲博愛堂(鐘路三丁目) ▲以文堂(安國洞) ▲東光婦人商會(鐘路二丁目) ▲東仁商店(東大門) ▲南大門市場商人聯合會(南大門市場內)
申請期限 十月二日까지

主催 朝鮮日報社

日曜講話

▲貞洞教會 上午十一時『主校와敎會』 벨닝스牧師 下午七時半『본든것이 죄인가』 金鍾浩牧師
▲南大門教會 『누구를믿을가』 金英珠牧師 午後後七時半 『交通의生命』 裵炳周牧師
▲尙洞教會 午前十一時講話『불상한 반신불수』 李澈周牧師 八時講話 『꿈』 任英彬先生
▲中央教會 午前十一時『道』 金永燮監理師 午後七時半 『何處에 在하십니가』 崔允寬先生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下午三時『信仰의必要』 方熙氏
▲宗敎禮拜堂 午前十一時『一元機에對敵』 金約瑟氏 午後七時半 『일하자』 張錫敎氏
▲覺皇寺 午前十一時『今後의朝鮮佛敎』 朴錫權先生

全朝鮮學生籠球最終日
灼熱된白兵戰에 延專、中東連續制覇
徽文軍한꼴差로憤敗

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의 第十一回全朝鮮學生選手權大會 最終日은 二十八日 午後二時부터 鍾路靑年會館 後庭코ー트에서열린바 이날中等部 準決勝戰이잇서서 徽文이 一高普、中東이靑學을이겨서 最後의 榮冠을 目標로 中東과 徽文이 文字그대로의 白兵戰을 演하더니 中東軍이 徽文軍을한個差로 물리서니 連三年制霸를 掌握하엿스며 專門部에는 延專이 崇專을 손쉽게이겨서 連二年이 大會의優勝權을獲得하엿다 이리하야 同大會會長 尹致昊氏로부터 兩優勝팀에게 優勝旗와밋 優勝盃를授與하니 때는午後六時! 連四日間盛況을 이룬同大會는 이로써 圓滿히終幕을 告하엿다

中學部準決勝 中東37(1225…2112)33靑學

靑年會學校對 前年優勝校 中東學校戰은 同日 午後三時九分부터 金化泳 安台慶 兩氏審判으로 開始된바 前半戰兩軍 洗練된 技術을 發揮하야 中東軍은 開戰後 三分에 最初의 꼴을 비롯하야 二十五點 靑學軍은 五分에 꼴을 짓기 始作하야 十二點을 너허 그差 十三點을 보이드니 靑學軍 後半戰初부터 猛戰을 달리하야 中東의 堅陣을 攪亂케하며 三分을 남기고 꼴 한個差로 肉迫하드니 中東의 李容觀君의 長距離솟으로 連續得點하야 結局 三十七對 三十三으로 靑學軍 念願惜敗하엿다

中東	反	前	後		靑學	前	後	反
李容觀	1	8	9	F	兪仁濬	4	9	0
李龍寬	1	8	1	F	徐廷鉉	0	2	0
田亨鎭	0	0	0	C	權重璘	2	6	2
孫仁權	1	5	1	C				
李河伯	0	4	1	G	金泰植	0	0	0
				G	李俊鎬	0	0	1
				G	李鍾燮	2	4	1
朴東漢	2	0	0	G	李應斌	4	0	2
	5	25	12			12	21	6

專門部決勝戰 延專90(前半39…19後半51…21)崇專30

昨年의覇者 延專對崇實專門의決勝戰은 同午後四時十五分부터 張權、李惠逢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崇專軍戰初에 一時好調를보이며、三分까지4…2로리ー드 하엿다가延專은依然攻勢에나아가 自由自在한連絡으로 崇專을餘地업시 壓倒하야 前半에三十九對十九로하야 延專斷然리ー드、後半에드러가延專軍 依然威力을發揮하니 實力의差는 어찌할수업시崇專軍끗끗내苦戰타가 結局九十對三十이란 엄청난스코어로延專再優勝하엿다

延專	反	前	後		崇專	前	後	反
金應鎬	3	6	16	F	李鎭華	4	6	2
洪文吉	0	14	11	F	陳龍動	2	2	2
廉殷鉉	2	7	12	C	金賢錫	4	10	4
				C	金盛觀	0	0	0
張利鎭	1	6	8	G	金聖重	4	2	4
申鉉銘	1	2	2	G	權泰根	0	0	0
李萬傑	0	4	2	G	韓庠彬	5	1	2
	7	39	51			19	21	14

中等部決勝戰 中東33(前半17…16、後半16…15)徽文31

連二次制覇한 中東과鬪志滿滿한 徽文의 決勝戰은 이날白眉의一戰인지라 場內의人氣를 담북실고 丁相允、田經鎭兩氏審判아래 開戰되엿다 劈頭에中東軍孫仁權의「점프슛」으로得點하니 이에徽文東의去年變自由投를利하야一點을 挽回하자 中東得意의速攻으로 徽文後陣을攪亂하야投射도漸次로 正確히李容觀、朴東漢、李龍寬의 奮鬪로 六分8…3中東리ー드、이로부터徽文軍愼重히 임을展開시켜 堅固한 守備로서 得點의餘裕를 中東에게주지안트니 徽文金容武의飛躍的活動으로 十分11…8로中東을肉迫하야 戰勢는漸次激烈化하니 兩軍熟練된 技術로 伯仲之勢를보이며 前半은17…16中東一點을리ー드、後半에드러가 中東陣勢를가추어 徽文의守勢를둘코七分에22…16中東리ー드、이에徽文屈치안코 姜日東、金容武의活躍으로十分에24…24同點되니 滿場의 歡呼聲은 場內를 震動케하엿다 타임업三分을 남기고 徽文31…30으로 드듸여 一點을 리ー드하엿다가 中東軍 李東漢 殊勳의 一長投成功으로 艱辛히 徽文을 물리치고 優勝하엿다(제임四十分間)

徽文	反	前	後		中東	前	後	反
姜日東	2	4	6	F	李容觀	2	4	2
尹恒燮	1	6	1	F	田亨鎭	0		
				F	李龍寬	8	5	2
黃奎鳳	1	0	0	C	孫仁權	3	0	0
金容武	0	6	8	G	李河伯	0	0	2
申鳳浩	2	0	0	G	朴東漢	4	7	0
	6	16	15			17	19	6

A마라손 李君一着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八回A마라손會는 月例에依하야 二十八日午後三時부터 光化門通비거리廣場을出發歸着點으로 漢江第一人道橋北端往復코ー스(約八哩)에서行한바 이날參加選手는 二十餘名으로서 爽凉한 가을날씨에 바랄한점업는 絶好한컨디숀」아래열리어 京城職業學校의 李振燮君이 往復所要時間 四十三分三十七秒로 優勝하엿다

【往復路着順】
1、李振燮(京職)43分37秒
2、鄭壽吉(京城)44分32秒
3、方壽奉(白馬)47分F
4、朴仁熙(京城)47分27秒
5、金鍾服(京城)47分56秒
6、李澤柱(徽新)48分12秒
7、權命石(京城)48分40秒
8、梁聖煥(苑洞)49分50秒
9、洪世仁(高工)50分17秒
10、金壽奉(京城)51分F
11、金國培(孔德里)53分40秒
12、張大遠(京城)54分15秒

對全大阪戰에 全京城軍惜敗

【小倉電話電通】 西日本選拔都市對抗野球第二次戰의 全京城對全大阪戰은 二十八日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全京城先攻으로開始된戰後膠着戰에入하야結局六A對五로全京城軍惜敗閉戰午後二時三分

實業庭球리그 第十二日의戰績

京城實業庭球리ー그第十二日의鐵道對府廳戰은 府廳軍이 專賣對總督府戰은專賣局이 商銀對朝銀戰은商銀軍이 各勝하엿스며 남어지日의日程은中止되엿든 府廳對總督府戰은 府廳이 總督府를이기고 朝銀對遞信戰은 遞信軍이 勝捷하엿스며 二十五日分의商銀對遞信戰은商銀軍이 이것다

【朝銀】 【商銀】勝
岩谷·山田 0…4 小野·武田
庄司·橫田 2…4 坂東·保住
池田·福田 4…1 李準燁·洪承南
加藤·山根 0…4 洪鍾相·河村
【第二라운드】
鶴田·牛川 4…0 金泰和·李時浩
【第三라운드】
加藤·山根 0…4 鈴木·金應國
【第四라운드】
鶴田·牛川 0…4 鈴木·金應國
【總督府】 【府廳】勝
【第三라운드】
嚴秉律·車應烈 2…4 洪承杰·李鳳基
【第四라운드】
和栗·金鍾朝 2…4 洪承杰·李鳳基
【遞信】 【商銀】勝
【第二라운드】
瀨脇·元大全 2…4 武田·小野
(以下戰績明夕刊에)

今日의運動

▲普通學校運動會=漢江公普 明星學校 午前九時 同校校庭
▲陸上=朝鮮陸協主催 日本陸上競技選手權大會 朝鮮豫選會正午 京城運動場
▲럭비蹴球=秋期리ー그戰豫對京中(午後二時半)龍山鐵道球場
▲庭球=京城實業리ー그第十三日 遞信對殖銀 府廳對專賣 殖銀對府廳 朝銀對鐵道 總督府對鐵道 午前十時 京城運動場에서

신발견된 림질·매독을 속히고치는제일조흔약
(조선총독부출원허가제)

본사가 절대로 보증하는、림질매독치료약은 제국대학의과대학병원 영미독불의과대학병원 에서 최고최량약으로서 찬양사용하며、또

內務大臣을會長으로하고、醫藥學界의最高權威者十六名을委員으로하야、愼重審議한後、그品位를定하야日本藥局方에收載하고그우에 내무성위생시험소보증봉함 이잇는 治淋劑六種을主藥으로하야、何等의副作用이업도록 配劑한許可濟의 公認治淋劑이다

따라서 그약효의 절대함은 다년 림상실험의결과 의약학계에서 철저적전치약으로 추장을밧게되엿스며 『이이상가는 약은업다』고 하는 절대적신념을가지고 정제한것이다 그리고 약효에대하여서도 무효한데에는 돈을도로드릴것이니 별별치료를다하야 보아도 효과가 업는환자는 하로밧비이약으로전치하십시오

藥의有效無效는 小便을보면判定된다

림질환자는 여러가지료법에 미혹되야서는 안된다 제일주의할것은오줌이다 보통우리가 림질을 알어낼때면、소변을 컵에다바터 보촉、실낫가튼것이나 몬지가튼것이 떳다가러안젓다한다 즉 그것이 림사(淋絲)다 아무리 약을먹고 주사를할지라도、컵에 오줌을 바터보와、실낫가튼 림사(淋絲)가 곳적어지지안호면 효력업는것이다 그럼으로 소변을 보와림사(淋絲)가 떠러진약을 먹지안호면 안된다 약이효력잇스면 림사(淋絲)도 적어지고、묽증도업서지며、고통도 잡히여전쾌의 목적을달할수가잇다.

梅毒

本社創製의 梅毒藥은 政府制定日本藥局方驅梅劑三種과皇漢梅毒藥數種을主藥으로하야副作用이絶對업는 出願許可濟公認驅梅劑로서

초긔의감창、가래톳의 치료는 물론、제이긔전신매독、잠복매독、유선매독、매독성루마지스등도 본제의내복으로、곳 배독작용(排毒作用)을 하며、매독으로 일어나는 불쾌증과 국부와 전신증상이 점점히바하여저서 치병의 목적을달할수잇다 무서운 매독을 자손에게 유전치안토록 하로라도 빨리본사의 구매제(驅梅劑)를 복용하야 고치시라.

림질 별제(팔일분)팔원 약특제(팔일분)사원
매독 별제(십칠일분)팔원 약특제(십칠일분)륙원

電話及振替口座新設 電話本局二三六三番 振替京城二三一五六番 京城郵便局前 有田ドラッグ

책임제약임으로 다른약점에는 팔게하지안습니다 작의 有田드락구전매소에서 사십시요

有田드락구專賣所鮮滿所在地

京城 郵便本局前 有田드락구 / 黃金町四 有田드락구 / 龍山漢江通 有田드락구
平壤本局前 有田드락구
釜山幸町一 有田드락구
仁川宮町二 有田드락구
大田榮町一 有田드락구
群山驛前通 有田드락구
全州高砂町 有田드락구
光州本町三 有田드락구
木浦榮町二 有田드락구
大邱弓町 有田드락구
馬山京町三 有田드락구
麗水港町 有田드락구
浦項本町 有田드락구
兼二浦本町 有田드락구
鎭南浦碑石里 有田드락구
海州南本町 有田드락구
新義州榮町 有田드락구
元山本町三 有田드락구
咸興本町二 有田드락구
羅南生駒町 有田드락구
安東縣四番通 有田드락구
奉天驛前 有田드락구
撫順東六條 有田드락구
開原新市街 有田드락구
四平街舍盛路 有田드락구
新京東一條通 有田드락구
哈爾賓傅家甸 有田드락구
大連越後町 有田드락구

滿鮮發賣元 京城郵便局前 有田드락구

自働式電話에對하야
京城中央電話局

京城中央電話局本局 自働式電話는 約二十五周年記念日인十月一日午前零時부터 開通하게 되얏습니다 本邦에서 自働式電話가 採用되기는大正十二年四月 大連市가 嚆矢입니다 其後大震災의 復舊에 採用되게되아서 大正十五年一月에 京橋、本所、三月에 下谷、神田、茅場町이 開通되엿는바 爾來普通電話의 自働交換化가 實現하게되야 現在에는 自働式局數가 內地六十一局 樺太一局 臺灣一局 朝鮮은 釜山京城本局二局、淸津은 來年一月末부터 工事에着手할豫定) 關東州內四局、滿洲國八局)의多數에 達하고잇습니다 自働式電話은 其文字의 뜻과가치 人力을 빌지안코 全혀機械의 働作으로써 交換이됩니다 그리하야 自働的으로 其交換을 行하게하는 그根本働作은 電話를 使用하는 사람自身이 하지 아니하면 안됨으로 正確한 取扱方法을 알으신 후 取扱方法에 熟達하여야할것은 勿論 電話의 利便을 享受하게된다는것으로서 換言하면 京城府民 여러분이 遺憾업시이것을 잘 使用하신다면 그만큼 社會의 福祉를 增進하엿다고 볼수잇슴으로 本局의 自動化에 對하야 府民諸氏는 躍進朝鮮의 文化를 益益發揚식히는 意味로서 充分한 用意를 가지고 그利用效果를 더하도록 努力하여주심을 바랍니다 아무조록 이主旨를 諒解하시와 左記의 使用方法을 解得한後 十月一日以後의 實際에 當하야 其使用을 그릇치지안토록 비라는바입니다.

自働式電話의使用法

自働式電話를 걸으실나면 몬저 第一呼出器의 廻轉盤을돌니는 順次를아서야되겟슴니다 廻轉盤을돌니면 數字孔에食指를 너어서 右便으로 꽉 돌닌다음에 노읍니다 決코 途中에 노으지면 안됩니다 途中에노으시면 틀니게 動作이되야 誤番接續의 原因이됨으로 指止까지 반드시 돌닌後에손을떼야합니다 그다음 自働式은 局名을 告할必要가업슴으로 一數字로서 局番號가 定하야 젓슴으로 本局은2 光化門은3 龍山은4입니다 또한 電話番號는 只今까지 一數字부터 四數字까지 잇섯스나 이번에는 一律的으로 全部四數字로 되얏습니다 卽 交換機械의 働作이 千單位로 働作하는 構造로 되야잇슴으로 五番은 0005 六十三番은 0063 百六十番은 0160 이와가치 0도數字의 內에 들어감으로決코 빼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本局의 加入者를 불을려면 반드시 局番號와 電話番號를合한 五數字를 順次로指止까지 돌니지 안호면 안됨으로 숫자와 손구락數를 돌니는것을 외여두면 그만입니다 電話를거실때 從來와가치受話器를들으면 電話事務員이 몃番이냐고 뭇고 도말하는中이면 말하는中이라고 알여주엇지마는 只今은 媒介體가 機械이니 말로 應對할수업슴으로 여러가지信號音으로 信號하야 알이여드리게되얏습니다 受話器를 가만히들으면 쓰ー하고 連續소리가들닙니다 이것은 發信音이라고하야 電話事務員이 몃番이냐고 물는데 相當하야 機械가 곳출여달나는 信號입니다 番號를 다돌이면 지ー하고 斷續하야들니는 音은 話中音이라하야서 말하는中이라고 機械가 拒絶하는소리입니다 萬一電話를 돌니는途中에 들니는때는局線이 只今꽉차잇는 信號입니다 番號를돌이고나면 쓰ー하는 斷續音이들니는것은 呼出音인데 相對方을 불으는中이라는 信號이올시다 오래들닐때는 相對方宅에서 모다 外出하섯슬때等이올시다 至今까지 말삼한 廻轉盤돌니는方法 局番號電話番號와 三種信號音을잘 아시고 다음에 電話하시는方法을 말삼하겟습니다

몬저受話器를 掛金物에서 조용이떼여서귀에대면쓰ー하는發信音이들니면受話器를 귀에댄대로廻轉盤의구멍에 손구락으로局番號와電話番號의五數字를指止까지順次로돌여서놈니다 萬一돌니는途中에 돌이는方法이라든지數字가틀니여슬때는 一旦受話器를걸엇다가다시처음부터걸고집니다 受話器를걸면 機械가곳 復舊되게됨으로 通話의中途에 掛金物을건는것은 大禁物입니다 말을다하면 受話器는 곳걸지안흐면 안됩니다 그대로 노아두면 局에서 故障이라고看做하고 끗는일이잇습니다 또 通話中途에 말이끗치면 電話를 바로잇는 곳受話器를 걸고 저편에서 또불을때까지 기달여주시오 雙方에서 불는즉 서로말하는中으로 되야서 말할수업게됩니다 光化門과 龍山의 兩分局에 걸때는 거는法이틀닙니다 몬저 受話器를들고 쓰ー하는 發信音이 들이면 受話器를 귀에댄대로 光化門…番 又龍山…番이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即自働式電話로걸때는 本局區內에 걸때와、手働式의 兩分局에 거는것이 틀니는것이 올시다 이點은 內地六大都市의 거는法과틀녀서 本邦에서는 京城만의 獨特한法임으로 特히 注意하여주십시요 그다음 特殊番號라하야서 加入者로부터 가장頻繁히물너내는 重要한局用電話는 單只三數字만 돌니면됩니다 即千位의0도 局番號도必要업습니다 詳細한것은 電話番號簿에 揭載하야잇스나 一、二의例를보이면 其局의五百番에 찻게되얏스나 只今은 番號全部가 本局의 集中案內係 即一00番에서 簡易하게되얏습니다 그럼으로 本局의 加入者는 一00과 三數字만돌니면 그만으로 亦是 兩分局의 加入者는 本局一00으로 請求하시면 조흡니다 市外를請求하실때는 一0一、故障時는 一一三을돌이면 조흡니다 兩分局은 市外인境遇는 從來대로 市外라고 불느고 故障인때는 其局의六○番을 부르십시요 出火를 消防署에通知할때는 一一九를돌닙니다 이番號를돌녀서 出火의場所等을 물어보시면 消防署에서는 決코 應하지안습니다 兩分局은 亦是現在대로 火災라고 불르십시요 또 光化門과 龍山의兩分局에서 自働式의 本局에거실때는 亦是從來대로 變함업시 局名電話番號(局番號를 말하면아니됨니다)를 말하면 조흠으로 局側에서도 電話事務員이 自座席에 備置한 呼出器의廻轉盤을 番號의順으로 돌녀서 局의 自働交換機械를 作用식혀서 接하도록되야 잇습니다 이에잇는 公衆電話의 거는法도 亦只今까지대로變치안이에잇습니다

△ △ △

十月一日午前零時切替工事의時는 十分間쯤 不通이될터이니 그리케아시고 電話를걸도록하십시요 切替後는 곳新番號簿를 보시고걸어주시오 自働式施設에따라서本局에 編入되는 加入者가 二百六十餘名잇스며 一部에 番號의變更(千百二千百三千百四千百位의 來共通(代表)番號의 取扱을 하고잇는 加入者番號九가부터잇는 加入者等)이잇슴으로 舊番號를 쓰시면 間에는 困難한일이 일어나니 絶對로 쓰지마시도록 바라주시기를 바라나이다.

絹代孃이 「永久の愛」に出演の時着用した 衣裳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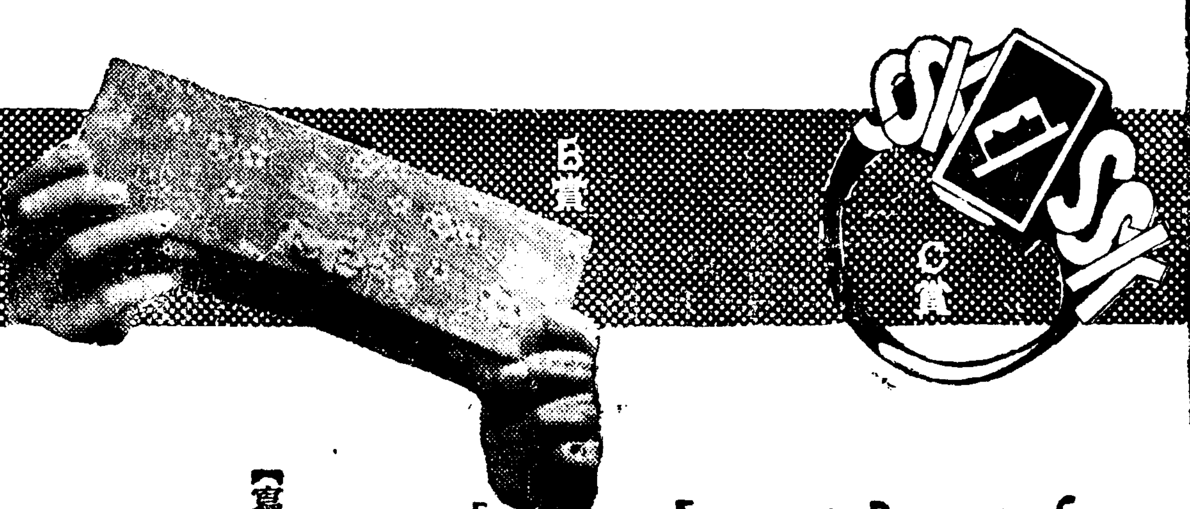
趣味の大懸賞

스타ー와의 質問

一、本名은?
二、生日은?
三、첫出演은?
四、趣味는?

懸賞課題의 生覺하는法

三大스타ー에 네가지 質問을하엿더니 別로 말치안튼 趣味와 美의秘訣等을 下記와가티 對答하여 주웟습니다。당신들이 조와하시는 스타ー를 每日 그러케도 어엽부게 하여 주는것을 下記規定에 依하야 對答하여주십시요。



賞品

特賞 여호목도리 三十名
A賞 絹代입은 (永久의愛 出演衣裳) 五十名
B賞 栗島考案 핸드백 五十名
C賞 다ー키ー愛用 純銀반지 (以上高島屋謹製) 百名
D賞 美術粉白粉容器 二千名
E賞 다ー키ー傑作 寫眞集 (앨범) 二千名
F賞 스타ー自叙傳 (매진업시進呈) 千名

【寫眞說明】
特、겨울에豪華流行의女王여호목도리
A、絹代孃이(永久의愛)에입은衣裳
B、栗島孃이創案한支那更紗製핸드백
C、다ー키ー를象徵한帽子와SSK의文字를表現한藝術的純銀반지

答

(答) 田中絹代

一、絹代짱은 亦是田中絹代
二、明治四十三年十二月에낫스니 今年에 멧살일가?
三、映畵「恥しい夢」에處女出演
四、요새 나말솜이요! 日用裝飾物 모으기에 專心하지요 趣味는? 스포츠、音樂、고양이、映餠、호호호第一조와하는것이 아주 또하나잇지요 그것은요、참으로 밝는것갓치 보이지안케 나의목과 얼골 살 바탕부터 이러케도 美白하게 손쉽게맨들어주는 마스타ー 衿白粉과 물白粉의 新肌色! 나는 이런것의 優雅한 香氣와 淸新한 빗갈이 아조 썩조와요

(答) 栗島すみ子

一、栗島すみ子는 本名 只今은 池田すみ子
二、明治卅六年三月生입니다
三、「虞美人草」
四、나의 舞踊은 嗜好를넘어서 ×요 호호 그러고 핸드빽을 蒐集한것과 그것을 自己가 案新한것이 조와요 그러고 美容硏究지요 우리 스미美容院에는 요새 마스타ー液狀衿白粉이 굉장한 好評입니다。第一 白粉下가 업시도 곽 물白粉을 얼골에 발는것과갓튼 方法으로 써簡單히 스마ー트한 목덜미化粧이됨으로 年中粉忙한 우리들에게는 아조 퍽조와요

(答) 水の江ターキー

一、ターキー는 三浦うめ子 우습지요?
二、大正四年二月北海道小樽市스스란 (鈴蘭)꼿에 햇그러운郊外는 나의 가장追憶되는것입니다。
三、「先生はお人好し」
四、에? 그는 나의 生活必須品이지요 호호호! 에 조금도 얼골이 안꺼려다고요그 立體的인빗갈 그러고 優雅한 香氣 마스타ー홈팍트의 가가오色과 살속으로 살르르 녹어드는 마스타ー바늬싱을 家庭化粧에 여태것愛用하고잇는 結果이지요

申込規定

▲答案用紙 마스타ー香粧品定價三十錢以上사신후에 그 空函의 裏面에 答과住所氏名 朝鮮日報名을 明記하야주십시요 (郵稅는 空函一枚마다 三錢切手를 封套에 貼付하여 주십시요。郵稅不足한것은 受理치안읍니다)
▲締切 十二月十五日
▲發表 昭和十一年二月號婦人雜誌 (主婦之友、婦人俱樂部、婦女界、婦人公論)
▲抽籤 應募者多數時는嚴正抽籤합니다
▲賞品發送 一月中旬(C・D・E・F賞에當籤된분은賞品發送으로써發表에 代身합니다。
▲送處 京城太平通一ノ六一 朝鮮日報社廣告部內 マスター香粧品懸賞係

マスター バニシング クリーム

林巨正

火賊 (93)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三

여러두령이 꺽정이 나려오게 할 계책을 공론하다가 전일에 황천왕동이가 돗고온말도 잇고 하니 개춘하기까지 기다려보자고 작정들하얏섯다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와서 눈녹이는 산골도랑에 물소리가 졸졸 나고 양지바른 산달에 풀닙이 포릇포릇 도들때가 되엇는데 꺽정이는 오지아니하야 황천왕동이가 다시 한번 재촉하러 가서 하룻밤 묵어가며 이야기한 끄테 겨우 수이 오겟다는 허락을 밧고 돌아 와섯다 그런데 수이온다든사람이 열흘이 지나고보름이 지나도 아무소식이업서서 달은두령들이 황천왕동이더러 서울을 한번더 갓다오라고 말한즉 황천왕동이가 자긔는 또가기 실흐니 달은사람이 한번 가보라고 말하고 아니가랴고하얏다 빨은걸음에 속히갓다오라, 이왕 마려노코 다니다시피하는 길이니 사피할생각을 말라, 이번만 더갓다오면 다시 가란말을 아니하마 달은두령들이 이소리저소리 짓거려서 황천왕동이가 마침내 가게되엇는데 대리로 괴수노릇하는 리봉학이가 이번에는 대장을 뫼시고 오도록하고 정히 뫼사고오지못하겟거든 분명히 어느날 오신다는 말슴이라도 듯고오라고 서울가서 할일을 닐러주고 도중의 모사(謀士)행세하는 서림이가 이번에도 대장이 뒤로 밀우고 안오려드시거든 우리들이전부터 서울로 올라가게되거나 그럭치안흐면 다각기 사방으로 허터지게될지 몰은다고 단단히 말슴하야보라고 꺽정이 만나서 할말을 가르처주엇다

황천왕동이가 광복산서 아침 일즉어니도 떠낫지만 해가 제법 길어저서 서울을 들어올때 승석때가 못되엇섯다 꺽정이의 처소는 가보아야 의례 비엇스러니 짐작 하고 한온이의 큰집사랑으로 들어왓더니 사랑에는 서사가 나와마지며

「황두령 오섯습니까」

하고 인사한뒤 바로

「넘어집에를 안들리시구 바루 이리 오섯습니까」

하고 뭇어서 황천왕동이는 안들렷다고 고개를 끄덕이엇다

「오늘이 우리집 자근주인 생일이지요 임선다님두 넘어집에 와서 기십니다 아니 저녁잡숫기전에 어듸 출입안하섯슬겝니다」

한온이가 꺽정이를 위하는말으로 꺽정이가 자긔집에서 숙식하지안는것을 광복산 두령이나 졸개에게 알리지안토록하라고 집안사람들을 신칙하야준까닭에 서사가 꺽정이말을 할때 무심코 달은데서 온것으로 말하얏다가 얼른 죽이안한것처럼 고처말한것이엇다 황천왕동이는 꺽정이가 처소에잇는줄을 안바엔 서사와 더이야기하고잇슬것이 업서서 곳

「그럼 나는 저집으루 가보겟소」

말하고 돌우 사랑중문밧그로 나가랴고하다가 서사가

「저 사이문으루 가시지요」

하고 말하야 큰집과 넘어집 사이에잇는 일각문으로 나와다 문열어노흔 건느방에는 상노아이 서넛이 머리를 한데모호고 바스락작난들을하고 문다친 안방에서는 남녀석겨 웃고떠드는 소리가 들리엇다 황천왕동이가 뜰압 갓가이 들어왓슬때 상노아이들이 내다 보더니 하나가 마루로 쪼차나오며 곳안방 웃간문을 열고 방안을드려다보면서

「임선다님 시굴서 손님이 오섯습니다」

하고 고하얏다 꺽정이는 들은체아니하는지 아무소리가업고

「어듸」

하고 뭇는것이 한온이의 목소리이엇다 황천왕동이가 뜰우에 올라서서 여긔왓노라 알리듯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하니 상노아이가 한여프로 비켜서며 한온이가 내다보고 대뜸 실업슨말로

「오늘이 내생일인줄 알구왓느냐 이왕 올라면 어제쯤 와서 오늘 아침밥이나 가치먹게할것이지 인제 다 저녁때 온단말이냐 네가 종시 생각이 좀부족한모양이야 하여간 삼백니 전도에 전위해온것만은 긔특하다 어서 올라와서 절이나 한번해라」

한온이와 황천왕동이가 서로 친하야 실업시 농지거리하는사이지마는 원처에서 온친구를보고 나와인사도안코 가만이안저서 놀부터 거는것은 황천왕동이의 맘에 적이 불쾌하야

「심헐는자식」

하고 가벼게 대꾸한뒤 마루끄테 걸터안저서 길목을 밧구어신고 방안으로 들어왓다

來月上旬頃 大豆共販
京畿農會서入札

今年京畿道의 大豆作은 稀有의 豊作이어서 大增産을 豫想하고잇는바 數日前부터 道內各市場에는 小豆의出廻를 보고잇는터로 道農會에서는 仁川取引市場에 標準삼어 一般米商人에게 十月上旬頃 共同入札을 식혀서 同中旬 부터 大豆共販을 實施할 設定이라는데 今年 出廻는 約一萬石豫想으로前年 七千三百六十石에 比하야二千餘石의 增加를 보리라한다 그러고 今年은 市勢도 高價를 示하야 一石當 十六圓乃至 十九圓가량이라한다

全滿洲朝鮮人米作 大增收를豫想

全滿洲在留朝鮮人의 今年度米作은 七月下旬及八月上旬의 大降雨로 因하야 部分的으로 被害가 잇섯스나 其後의 天候가 順調이어서 成育이 良好할뿐만 아니라 今年은 作付面積도 增加되야 八月二十四日現在의 收穫豫想은 百萬石(作付面積十萬二千町步)으로 前年에 比하야 七割七分의 增收를 보리라한다

蔚山棉花豐作

【蔚山】 慶南蔚山郡陸地棉은 大槪豊作으로 一百六十萬斤을 豫想한다는바金額으로는 二十四萬圓에 達한다하며 昨年보다 約六十萬斤의增產이라고한다

高級塗料材인 油桐增產計畫
◇全南서今年부터實施

高級塗料로서 世界各國에 需要가잇는 油桐은 中國의 特產物인바 每年 日本에서도 五十萬圓의 輸入을 보고잇스며 그主産地인 南中國方面의 氣候風土가 該地方과 類似하므로 朝鮮에잇서도 栽培가 可能하리라하야 昭和七年以來 全南에서 中國으로부터 種子를 輸入하야 그試作에 着手한바 成績이 자못良好하야 今年에 開花하얏슴뿐아니라 道內 各地에도 自然으로 生長되고잇는것이 알려저서 油桐의 栽培는 더욱 有望視되야 全南道當局에서는 日本內地需要의 五十萬圓은 勿論 將來는 海外에 輸出할 方針으로 油桐樹栽 百萬本 計畫을 세워 今年度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技術者를 中國에 派遣하야 實情調査를 하는 同時에 中國으로부터의 油桐輸入을 禁止하고잇다한다

夏秋繭共販狀況

▲豊川 【豊川】 黃海道松禾郡農會에서는 二十日부터 二十六日까지 四日間 豊川面事務所倉庫에서 秋蠶共同販賣를 施行하엿는데 特勢가 昭和九年同期에 比하여 倍以上이 暴騰되어 最終日繭價特勢는 如左하다고한다

(生繭一貫에對한價格)

▲特等三、七三錢 ▲一等三、三九錢 ▲三等三、〇五錢 ▲四等二、七一錢 ▲等外二、〇三錢 ▲揃上一、五三錢 ▲揃下一、二三錢 ▲玉上一、五三錢 ▲玉下一、二二錢

▲唐津 【唐津】 忠南唐津郡下唐津、沔川、合德 三個所의 秋繭共同販賣를 各販賣所에서 開始하엿는바 如左히 繭價가 好勢를 示하고잇다고한다

▲特等三圓七十八錢 ▲一等三圓二十四錢 ▲二等三圓十錢 ▲三等二圓七十五錢 ▲四等二圓四十一錢 ▲等外一圓八十六錢 ▲玉上一圓七十一錢 ▲〇上一圓二十四錢 ▲〇下六十二錢

模範的頭痛藥

ノーシン (노ー신)

ノーシン먹고서

一分、二分、五分…

쪼개널듯하게압흐든머리가선듯가벼워저서 아지못한새에우슴이저절로나오게되얏서요!

하늘은풀으고 구름은하연대 참으로머리도淸澄!

―安全第一―

ノーシン에는납분作用이업습으로安全하고더구나頭痛뿐안이라執務、工失、映畵、裁縫、夜勤한뒤에머리가疲勞하야서몽롱하게된것을씨슨듯이이저바리게됩니다

主効

頭痛・偏頭痛
頭重・頭腦過勞
宿醉・頭內朦朧
眩暈・船車멀미

頭痛에第一、胃腸에無害

藥價 .20 .30 .50 1.00 2.00

★どこの藥店にもあり

製造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注意 ノーシン의信用이더욱더옥놉고賣行이旺盛함을보고類似藥이만히나오나ノーシン이가진獨特한綜合的効果는決코ノーシン그것대로模倣은못할것이다

仁丹 四博士責任劑 ポケット必携

胃腸保健에……惡疫豫防에……

只今이야말노仁丹活用의秋!

全國의令孃들께

乙女ケース進呈

그따문에特히短期間

ローズ仁丹 十錢包에添贈

어엽분赤산호色에 處女의美와明朗性을 신포라이즈한 굉장한人氣의仁丹容器

나도……나도……라고 가을씨ー즌에 굉장히 氣勢로 愛用의 케ー쓰 당신도꼭하나을!

로ー즈仁丹은 銀粒에 特히『薔薇』의 香精을 配伍한 口薰劑

本劑는 滋養 救急 口薰明朗하기때문에

口中惡臭에 訪問接客에
社交觀劇에 執務勉强에
氣鬱不快에 疲勞倦怠에
惡疫豫防에 船車旅行에
運動散步에 食前食後에
飮酒喫煙에 等、等

日常의 護身藥으로써널이愛用되고잇다

仁丹齒磨と仁丹石鹼本舖 大阪市 森下博營業所